

2025 인구주택총조사 현장 안전 최우선 - 응답자와 통계조사원 보호에 전력

- 국가데이터처(구 통계청)는 국민이 안전하게 2025 인구주택총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.
 - 2025 인구주택총조사 가구 방문 기간은 11월 1일부터 18일까지이며, 통계조사원의 가구 방문 시, 지방자치단체와 국가데이터처에서 발급한 통계조사요원증을 반드시 확인한 후에 조사에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.
 - 또한 인구주택총조사 홈페이지(census.go.kr), 콜센터(080-2025-2025, 08시~21시), 시군구 통계상황실을 통해 통계조사요원 이름으로 신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 -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통장 번호, 신용카드 번호, 계좌 비밀번호, 주민등록번호(13자리)를 절대 묻지 않고, 총조사와 관련한 모바일메시지(카톡, 문자)에는 어떠한 인터넷주소(URL)도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 각별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.
 - 응답자가 직접 총조사 홈페이지를 통해 통계조사원의 방문조사 일정을 예약할 수 있으며, 방문조사 기간 중에도 인터넷 또는 전화조사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.
- 통계조사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.
 - 조사 기간 동안 국가데이터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조사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하고 있습니다.

- 통계조사원이 방문조사 시 소지하는 태블릿PC에 생활안전지도(행정안전부, 구역별 범죄 발생 결과 제공)와 순찰신문고(경찰청, 순찰 요청), 음성녹음기 등 안전 앱(웹)을 설치하여 적극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.
 - 또한 관할 지구대(파출소)에 안전 보호를 요청할 수 있도록 경찰청과 협조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.
 - 통계조사원이 긴급 시 태블릿PC내 긴급호출 버튼을 누르면, 조사원의 GPS 위치 정보가 담당 시군구 공무원과 조사관리요원에게 즉시 발송되어 신속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.
 - 조사원의 개인 휴대폰번호 노출 방지를 위해 태블릿PC로 통화 수발신하도록 하였습니다.
 - 방문조사 시 응답자와 일정 간격 유지, 인터넷 또는 전화조사 참여를 안내하고, 부득이 늦은 시간에 가구를 방문할 경우에는 조사관리요원과 동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.
 - 현장조사 안전 교육을 강화하고, 손전등, 전자호루라기 등 기본적인 안전용품을 지급하였습니다.
- 인구주택총조사는 우리 사회와 국가 정책에 널리 활용되는 국가 기본조사로서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정확한 응답이 매우 중요합니다. 국가데이터처는 오는 11월 18일까지 2025 인구주택총조사가 안전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
담당 부서	조사관리국 인구총조사과	책임자	과 장	김서영 (042-481-3720)
		담당자	서기관	정은숙 (042-481-3721)